



[뉴스] HMM 입단협 극적 타결 물류대란 우려 해소 02



Economy

코스피	3175.85 (-31.17)	코스닥	1047.19 (+1.21)
금리 (미국 3개월)	1.423 (+0.006)	환율 (원/달러)	1161.50 (+4.30) (2일)

‘2035년 탄소중립’ 위한 정의선의 결단

“제네시스, 2025년부터 친환경차만 생산”

(수소·배터리 전기차)

‘퓨처링 제네시스’ 공개

듀얼 전동화 브랜드 비전 발표 모든 신차 수소·전기차만 출시 리튬이온 배터리 등 개발 총력 럭셔리 전동화 시장 선도 목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제네시스 최초의 전용 전기차 GV60.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025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신차들을 수소·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한다. 또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제네시스는 2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영상 ‘퓨처링 제네시스’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표방하며 출범한 제네시스는 가파른 판매량 확대, 브랜드 가치 격상 등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영상을 통해 “럭셔리 브랜드로 출범한 제네시스는 완성된 라인업과 뛰어난 상품성으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제네시스의 담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자 제네시스가 혁신적인 비전을 통해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료 전지·배터리 ‘듀얼 전동화’ 전략

제네시스는 연료 전지 기반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두 모델을 중심으로 한 ‘듀얼 전동화’ 전략을 통해 2025년부터 제네시스가 출시하는 모든 신차들을 수소 및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네시스는 ▲고출력·고성능의 신규 연료 전지 시스템 ▲고효율·고성능의 차세대 리튬이온배터리 등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듀얼 전동화 전략과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그룹사 최초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럭셔리 전동화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제네시스는 오는 2030년까지 총 8

개의 모델로 구성된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40만 대까지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전동화 라인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원자재와 부품은 물론, 생산 공정을 포함한 브랜드의 모든 가치 사슬에 혁신을 도모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구체화했다.

장재훈 제네시스 사장은 “제네시스는 럭셔리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고객과의 진정한 상호 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교류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2년까지 모든 세그먼트에 순수전기차를 투입하고 2025년부터는 전동화 모델만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볼보자동차도 2030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100% 전환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글로벌 판매의 50%를 전기차, 50%를 하이브리드차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동화 시대의 시작 알린 GV60

제네시스는 비전 발표와 함께 지난 달 공개한 전기차 모델 GV60을 선보였다. 제네시스 브랜드 전동화의 서막을 연 GV60은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브랜드 최초의 전용 전기차 모델로서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6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렌탈사업’ 年 평균 40% 성장 매출 7000억 기대

LG전자 렌탈 사업 성장세가 가파르다. 올 상반기에만 3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지난해 기록한 5911억 원 매출을 넘어 올해는 7000억 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LG전자는 연내 금융 실적적인 적은 소비자도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예정이라 향후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매출 3000억 달성…연평균 성장률 40% ↑

2일 LG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의 올해 상반기 렌탈 사업 매출은 304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2711억 원보다 12%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반기 매출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 상반기 렌탈사업 매출 3040억 기록 작년 대비 12% ↑, 반기 기준 역대최대 가전 수요 확대, 구독 경제 트렌드 주요 최상 성능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주목

LG전자의 렌탈 사업 매출은 해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렌탈 사업에 첫 발을 내딛은 뒤, 2016년 매출 1131억 원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대를 기록했다. 이후 연평균 40% 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에는 매출 5911억 원을 달성했다. 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LG전자 렌탈 사업 매출이 70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LG전자 렌탈 사업 성장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가전 수요 확대와 함께 구독경제 트렌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3년에 전 세계 기업의 약 75%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거로 전망돼 LG전자의 렌탈 사업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LG전자는 차별화된 관리서비스를 또 하나의 성장 배경으로 평가했다.

올 초 LG전자는 자사의 냉난방기·공조 시스템 서비스와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자회사 하이엔솔루션을 인적분할해 하이케어 솔루션을 신설했다. (6면에 계속)

/한창대 기자 cd1@



LG전자 렌탈 가전 관리 서비스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정수기를 관리하고 있다. /LG전자

M-커버스토리

조정장 속 늘어난 공매도… 악소리나는 반도체·게임株

공매도 재개 4개월

5~7월 공매도 거래대금 하락 지난달 들어 다시 상승 전환 기관·개인 vs 外人 다른 행보

지난 5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4개월이 지났다. 5월부터 7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공매도 거래대금은 8월에 상승 전환했다. 등락이 있던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이 혼란해질 것을 대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유가증권시장+코스닥)〉 (단위: 원)

월	외국인	기관	개인	전체
5월	11조4197억	1조7741억	2161억	13조4103억
6월	8조2167억	2조7034억	2167억	11조1370억
7월	7조6547억	2조9796억	2254억	10조8599억
8월	9조491억	2조7826억	2720억	12조1042억

기간: 2021.05.03~2021.08.31

/한국거래소

금지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1년 이내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재개한 건 1년여 후인 지난 5월

3일이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같은 대형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현재 중소형주는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상태.

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을 합한 전체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5월 13조4103억원, 6월 11조1370억

원, 7월 10조8599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공매도가 재개된 직후 공매도 수요가 몰렸다가 하향 안정화 돼가는 모습이다.

거래대금이 하락한 데는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 빠진 영향이 컸다.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3개월 연속 증가할 때,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연속 하락했다. 전체 거래대금에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5월 85.16%, 6월 73.78%, 7월 70.48%로 줄어들었다. 그러던 공매도 하락세는 8월 조정장에서 상승 전환했다.

(4면에 계속)

/양유경 기자 noon@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변호사단체, 文대통령 고발… “드루킹 몰랐다는 건 상식 반해” 주장
▲ 홍준표, 이낙연 잡았다…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10%로 공동 3위 /사진 뉴시스

▲ 이낙연 “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공수처가 수사해야”
▲ 靑 “강민석 전 대변인 회고록 내용,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



▲ 유승민 “정홍원, 룰 바꿀 거면 윤석열 선대위원장으로 가라” /사진 뉴시스
▲ 14대~19대 대선까지 ‘총청 승리=대권’ 이번에도 통할까